

“
지역 양계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관건이다.
”

□ 취재/이인수 기자



▲현재 평택양계단지는 대지 1만4천여평에 평지작업을 완료하고 '95년도말 계란생산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수 입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피해액을 최소화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양관리에서 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공동체계 구축으로 규격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구상되어진 사업이 바로 양계단지 조성사업이다.

그러나 다수의 인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인해 토지소유문제, 자금문제를 비롯하여 특히 인근주민들의 집단이기심 출

현으로 농장설립 반대 문제와 환경문제를 빙자하여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야기되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법적근거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요구까지 하여 양계단지 조성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 지연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그만두는 사례까지 발생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평택양계협업단지의 경우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농가 선정문제, 토지소유 분할문제, 주민들의 민원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5천수에서 1만5천수 소규모 재란업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신용보증기금 17억원, 리스자금 15억원 총 32억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대사리 소재에 1만4천여평을 지난 '91년 10월경 부지구입문제를 매듭짓고 현재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계사건축 허가를 받아 평지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계사건축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95년도말 계란생산을 목표로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계단지가 완료될 경우 건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농가 선정문제, 토지소유 분할문제, 주민들의 민원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

평 8천평규모에 54만여수가 사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리스자금, 신용보증기금을 융자받아 3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총공사비 92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영세업자로서 자금조달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라고 일선에서 직접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덕현 사장은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간 평택양계단지를 추진

해온 경위를 보면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구조개선 사업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깊이 인식한 바 지난 '89년 대상농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중 당시 농촌지도소 축산계의 자문을 받아 20여명이 참여,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양계단지사업을 구상하여 계획서를 작성한후 농촌지도소 통하여 농림수산부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바 지난 '89년말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90년 12월경 축산진흥기금 14억원, 군·도비 1억원 총 15억원을 양계단지조성사업비로 지원 받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91년 8월경 계사건축부지 매입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히 추진되면서부터 토지소유문제, 대상농가 선정문제와 아울러 인근주민 및 양계인들의 이기심이 팽배해지면서 같은 양계인들이 인근주민과 연계하여 농장설립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관계당국에 환경오염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관계당국에 단지 조성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문제가 야기되자 해당기관에서는 법적근거에도 없는 주민동의서

첨부요구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에서 지원받기로 했던 15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해야만 했고, 그후 2년동안이나 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향후 축산물의 수입 개방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국제화에 대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지조성사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년여 공백기간 동안 인근주민들과 양계인들을 대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준비를 다시하여 지난 '93년 신용보증기금, 리스자금을 융자받게 되면서 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상농가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던 무자격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대상농가를 산란계 사육농가로 한정하여 순수양계농가를 참여토록 유도하였으며, 토지소유분할문제 해결은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토록 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시 되었던 인근주

민 및 기존양계인들의 농장설립 반대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여 생산된 계분이 발효, 건조과정을 통하여 유기질 비료화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눈으로 직접 확인토록 하기위해 선진양계장을 직접 시찰토록 하여 이해를 구하는데 4년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들려주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자금동원 능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리스자금, 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아 부지매입 및 평지작업에 3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계사시설, 기타 부대설비 비용이 총 60억원이상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영세업자로서 현재 기존 양계장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자금이 더 소요되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형태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문제, 인근주민문제, 대상농가선정 문제들을 무리없이 해결을 하였기 때문에 전업농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

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여 각각 분산되어 있는 기존 양계장을 단지화로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은 계분을 유기질 비료화하여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동시에 소득증대, 공동방역을 통한 질병예방, 관리소홀로 인한 폐사를 방지, 단지화를 통하여 투자비, 인건비절감 등 생산성향상을 기하고, 자체부화를 통하여 계획생산도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될때 계란생산비는 지금보다 20% 정도 절감효과가 발생되어 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95년에 계란생산이 되어지기 까지는 자금문제를 비롯하여 여타 많은 난제들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간 추진해온 평택협업양계단지 참여자들의 성의와 노력을 보면 능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양계인들을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양계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나아가 무한경쟁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보여진다. **양계**